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스가랴 8:9-13, 마가복음 4:10-20

최정웅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종에게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반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2주 전만 해도 없던 말이 하나 생겼다. ‘브렉시트’라고 해서 나는 검은 자리(black seat)인 줄 알았다. (웃음) Britain’s Exit라는 말을 줄여서 ‘브렉시트(Brexit)’라는 말을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 사람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지는 않지만, 영국은 지금 나라가 나뉠 형편에 이르렀다. 우리는 위 상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당장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도 난리다.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 연결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로 뜨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살아가야 하겠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답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을 나는 너무 감사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끝나 버려야 한다. 부부 싸움 하다가도 한 분이 그리스도 하면 끝나 버려야 한다. (웃음) 화가 잔뜩 났다가도 그리스도 하면 끝나야 한다. 화난다고 사람 죽이고 뛰어내리고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우리 단체에서는 그리스도로 답 안 난 거 아니냐 하는 말이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서 남미까지 도망갔다. (웃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한다. 이 세상의 문제는 전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발생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창세기 3장에서 출발했다. 욕신의 이익만 생각하다가 결국 네피림 시대를 만나게 된다. 창세기 6장이다. 가짜 성공인데 그것 해 보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창세기 11장이다. 창세기 3, 6, 11장이 인생의 근본 문제다. 브렉시트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전부 이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영국을 2020년까지 유럽 무슬림화하는 메카로 삼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올해 런던 시장에 무슬림이 당선되었다. 여기에 영국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2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유럽 각국으로 몰려들어갔다. 난파선을 타고 들어가니까 난민을 받아줄 수밖에 없어서 공화국 자비로 받아준 것이다. 잘 한 일이지는 하다. 그러나 지금은 굶주리고 헐벗은 채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저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유럽이 무슬림화 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처음에는 얻어먹으며 갔다가 나중에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그랬다.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대로 있으면 복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나라로 왔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유럽에 복음이 희미해져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도 그런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탈퇴를 한 것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야단인 것이다. 일자리가 생길지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다. 미래를 모르니까 얼마나 암담한가. 그러니까 하는 것이 사도 행전 13, 16, 19장이다. 무속, 점술, 우상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결국 빠지게 되는 것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다. 어찌보면 세상은 지금 전부 이 속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을 보고 한 마디로 말해서 흑암 나라라고 한다. 완전히 혼란 그 자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신약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만이,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흑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은 이 흑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되겠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가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자기 가족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공생애 3년 동안에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1) 첫째 비밀이다. 그 나라의 주인, 통치자,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통치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마28:18).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가복음 1:15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망한 지구를 향해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왜 그런가? 예수님만이 죄와 사단과 자욕이라는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말이다. 사람 바라보지 말자.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찾아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스리면,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2)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통치자, 국민, 영토다.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임시정부부터 보아야 하는지, 1948년 정부 수립부터 보아야 하는지 많은 논란이 있는데, 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나라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13:38에서, 좋은 씨가 무엇이나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래봐도.’ 그때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다. ‘내가 노예라고? 천만의 말씀. 너희는 나를 노예로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곳을 통치하고 계시.’ 이것이 요셉을 살렸다.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약 잡은 사람이다.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애야,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까짓 문제는 너를 절대 망하게 할 수 없다. 쓰러뜨릴 수 없다. 능동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지만 하면 된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7:21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between us,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깨졌는가? 예수님이 깨셨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야.” 주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 모셨는가?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원수가 감히 침범할 못할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인가? 요한복음 1:12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다. 고린도전서 3:16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죄인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생각할 때, 반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12:28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하여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능력, 그 힘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소금이 될 수 있다. 희생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완전히 치유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가능하면 한발 양보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비굴한 자가 되기 쉽다. 양보해라. 하나님 믿지 마라. 하는 것에는 양보하면 안 된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지위, 명예, 돈은 다 쥐 버려라.

(3)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자녀인 우리라고 했다. 그 나라의 영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전도운동을 통해서 확장되는 우리의 현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쟁을 사명으로 명령하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흑암의 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다. 흑암의 나라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증인이 바로 요셉이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채소밭에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저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니구나. 저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네가 우리 집을 맡아 달라’ 한 것 아닌가. 여러분의 삶의 지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감옥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감옥에는 가지 마라. 진짜 힘든 곳이다. 나는 가봤다. 죄수로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 봤는데, 기결수 방, 미결수 방을 다 가 봤다. 들어가니까 문을 딱 잠그더라. 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겁이 날 정도였다. 한 시간 강의 끝나니까 열어주기에 다행히 나왔다. (웃음) 기결수 방은 밖에서만 봤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때와 비교하면 천국일 것이다. 45년 전에 가보니까 1평에 9명이 지낸다. 그 안에 번기가 있다. 제일 마지막 마가복음 에 온 사람이 거기서 자야 한다. 겨울에도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소장님에게 이야기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저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벽지도 바르고 장판도 깔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교회 연합회를 설득해서 가서 방을 조금 바꿔 주었다. 가면 안 되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곳을 갔는데도 요셉은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터푸스가 들게 된 것이다. 사정없이 번지는데, 누가 사형수, 죄수들을 돌봐 주겠는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고 줄을 쳐서 왕래를 끊어 버렸다. 그런데 청년 한 사람이 부지런히 돌면서 이 죄수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을 끓여서 먹이고, 열이 나는 것을 식히도록 찬 수건을 얹어주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질병이 나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 되지 않

나? 간수들의 말은 안 들어도 이 요셉의 말은 들으니까 간수들도 결국 모든 것을 맡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사람에게 나라가 맡겨지지 않나?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겁날 것이 없다.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우리가 나라사랑기독교연합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권영해 장로 같은 분은 안기부장을 했던 분이다. 나라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분이다. ‘제가 앞장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라. 어떤 총회장에게 전화를 하더니, “우리가 그분과 나라사랑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분을 괴롭히니까? 그만 하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마가복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국방관람을 지낸) 이상훈 장로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움직이면서 일하겠다고 같이 하지는 것이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1:1이다. 그래서 1:1을 계속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행1:3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두려움은 몰라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라. 그 믿음으로 공부하라.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안에서 공부하라. 사업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업하라. 직장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반드시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 평생에 이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2.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방법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신 내용이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것을 농사와 연결해서 설명하셨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온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단계가 나온다.

(1) 첫째 단계는, 우선 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슨 씨인가? 생명의 씨를 가져야 한다. 요일5:11-13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말씀하셨다. 이 생명이 있는 씨앗만이 자랄 수 있고, 싹을 틔울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씨, 바른 씨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약 본문에 보면 평강의 씨앗이라고 했다. 이 씨를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기를 축원한다.

여명이(의 복음소식 동영상 조회수가) 50만 건이 넘었다. 전국의 교회 목회자, 평신도들이 보고서, ‘참사랑교회는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몰랐다’ 그된다. 여명이, 내가 너 때문에 인사를 많이 받는다. (웃음) 여러분, 뱀전3:15에 뭐라고 했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복음메시지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란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소망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묻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설명해 주면 된다. 복음성구도 잘 암송하시기 바란다. 이 오직 복음이라는 씨를 잘 준비하는 것을 보고 일심이라고 한다. 일심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마침내 이 씨를 받을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주면 된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물중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으면 해방된다. 지옥에서 해방되고 천국이 시작된다. 이 땅에서 누리면 살 수 있다.

(2) 두 번째 단계가 있다. 이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자꾸 뿌려야 한다. 씨를 뿌릴 때는 땅이 어떤 땅인지 고민하지 말고 뿌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이 복음의 씨를 던지는 것이다. 어떤 것은 돌짜밭에, 어떤 것은 맨 땅에, 길바닥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지만,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목사님, 이제 내가 비로소 제자를 만났어요.” 다른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답이 없어서 열심으로만 했다고 한다. 그래도 답이 없는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확실한 답을 들은 것이다. 복음을 들은 것이다. 이 사람이 영안이 뜨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목사님, 제가 사역을 위해서 내 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삼기기 시작하는데,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야 한다. 시작할 때는 반도 없다가 기도할 때 되어보면 들어와 있다. 여러분, 늘 늦게 오다가, 천국 문 닫히고 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다. 5분만 빨리 와라.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중에서 진짜 전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현장에서 자꾸 복음운동의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전도캠프 아닌가? 이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전심으로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 들어보지 않았나?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돈은 왜 벌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버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제자가 일어나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3) 세 번째 단계가 있다. 씨를 뿌리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그때부터 하신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를 따라서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된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된다. 이것을 지속이라고 한다. 계속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이 온다. 우리 램넛들이 희망이 없다고? 아니다. 나도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게 되지 않았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현금봉투에는 여러분이 주신 생황비의 절반이 들어있다.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아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서 내가 나쁜 남편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목회를 하는 한 우리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① 기다릴 때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옥토 한 군데에만 씨가 뿌려져도, 마가복음 4:8에 말씀하기를, 30, 60, 100배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했다.

②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4:27에, 어떻게 자라든지도 알 수 없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이 돌보셔야 통일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 방법을 믿고 가는 것이다.

③ 허투어침에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금하면 안 된다. 마가복음 4:28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나온다고 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훈련의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제자를 세울 때에도 양육을 차례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참사랑 가족들은 훈련의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란다. 그것 안 하면서 돈 얼마나 모으셨는가. 얼마나 부자 되셨는가. 여러분, 허리띠를 풀라메고 훈련에 참여해 보라.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누렸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올 것이다.

④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진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겨자씨를 뿌렸는데,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고 했다. 우리 장로님 한 분만 성공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 말이 아니다.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루터였다.

⑤ 이것을 누가 누리게 되는가? 스가랴 8:12에 보니까,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우리는 남은 자다. 램넛들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 “끝까지 건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 램넛들, 후대들이 이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복음 각인, 복음 뿌리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우리 후대가 누리게 하실 것이다. 남은 모든 백성이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도록, 일심, 전심, 지속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한다.

말씀을 맺겠다. 이런 주간에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실천을 시작해야 되겠다. 마가복음 4:35-41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풍랑이 때로 일어난다. 이때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본주의로는 풍랑을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야 한다.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 내 가정도, 인생도, 전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겨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풍랑이 와도 상관없게 되는 것이다. 풍랑 가운데 있는 조각배 한 척이라 해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 반드시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구나.”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만 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